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Eye Exams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Eye Glasses Tel.732 / 393-1210
Contact Lenses Fax 732 / 393-1140
Eye Disease Treatment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KWIK
퀵 모기지
주/택/용/자/전/문

다양한용자상품, 전화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entury 21
SYLVIA GEIST AGENCY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즐거움 약국, 편안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감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Complete Auto Repair & Body Work
Lic. #2208A
NJ State Inspection

Tel (732)985-9500
Fax(732)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어진 풍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클리닉

732-248-1980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중앙 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NISSAN Jeep CHRYSLER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활
제 5주일
2020년
5월 10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8 : 00 AM
(영어) - 10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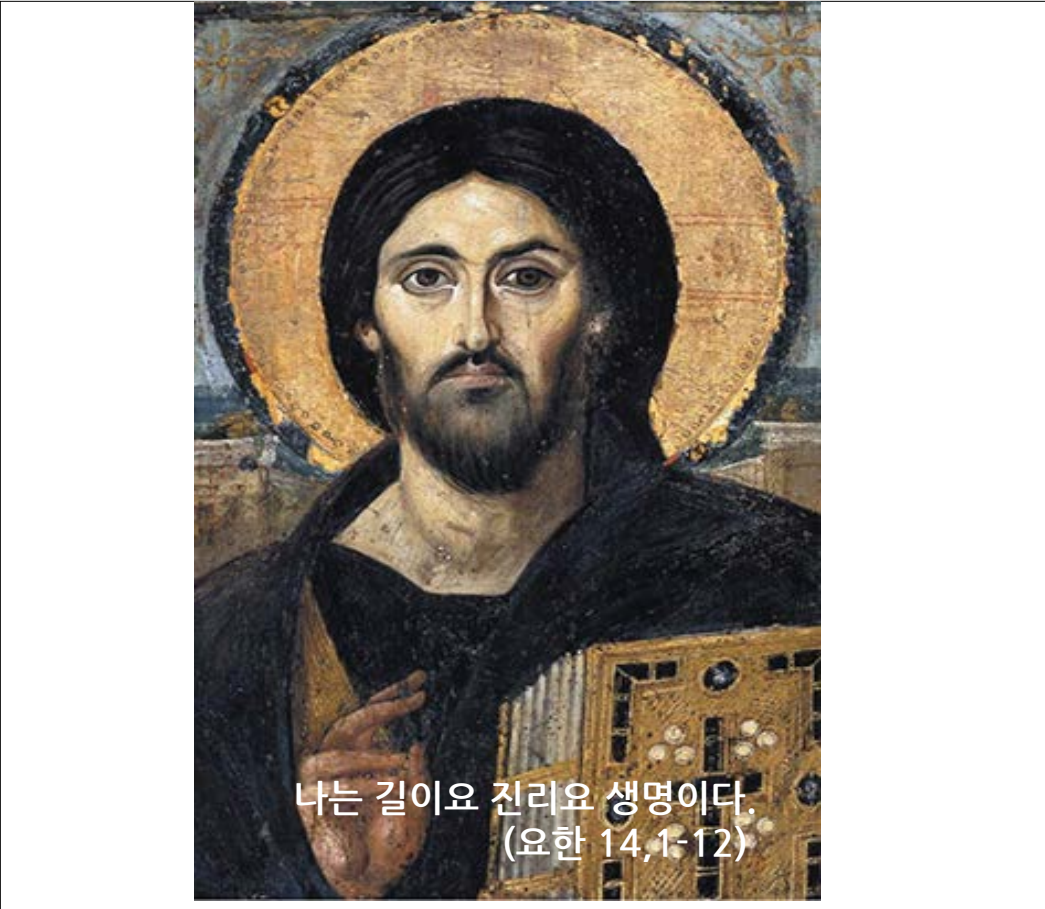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사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사도행전 6,1-7
화답송 시편 33(32),1-2.4-5.18-19
제2독서 베드로 1서 2,4-9
복음환호송 요한 14,6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음 요한 14,1-12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5/11/20	사도행전 14,5-18	요한 14,21-26
화요일 5/12/20	사도행전 14,19-28	요한 14,27-31
수요일 5/13/20	사도행전 15,1-6	요한 15,1-8
목요일 5/14/20	사도행전 1,15-17.20-26	요한 15,9-17
금요일 5/15/20	사도행전 15,22-31	요한 15,12-17
토요일 5/16/20	사도행전 16,1-10	요한 15,18-21
일요일 5/17/20	사도행전 8,5-8.14-17 베드로 1서 3,15-18	요한 14,15-21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정영옥(수산나) - 가족, 김자경(크리스티나)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이기주 (마리아) - 썸머셋 구역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홍 비안네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진철(요한) - 김 율리아, 스테파노 가족

교무금 납부 안내

서영원(5-6)	안현(1-6)	한철희(5-6)
추민수(1-4)	허중(4)	
합계: \$960		

감사 헌금 납부 안내

육순재(\$100)	안현(\$200)	서경호(\$200)
합계: \$50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합계: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3월5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9,085 (26%) 입니다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매일미사 책 배부 안내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미사 책 배부는 잠시 중단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제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732-356-1037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20-21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KCB 가톨릭방송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백만단 묵주기도운동
 -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백만단 묵주기도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생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비지니스, 가족들, 교회 여러 공동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묵주를 높이 들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기도하고 중재청원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 묵주기도는 4개의 신비(영광, 고통, 환희, 빛의 신비)로 이루어지며 각 신비는 10개의 성모송과 앞뒤로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으로 맺는 5개의 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신비를 코로나종식을 위한 청원기도지향으로 바치면 5단이 됩니다.
 - 레지오 마리에, 울뜨레야, 성령기도회, 성가대, 연령회, 전례봉사자 그 외 신심단체들 그리고 개인으로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가능합니다.
 - 기도를 마치면 이름과 소속 본당, 단체와 함께 단수를 카톡아이디 KCBNY 로 보내주시면 집계하여 합산하겠습니다.
 익명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718-888-9130 / KCBNYORG@gmail.com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참행복”에 대한 세번째 가르침 -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행복’ 가운데 세 번째 행복 선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태 5,5) 여기서 사용한 “온유(mite)”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달콤한, 온화한, 친절함, 폭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다툼의 순간에 나타나며, 적대적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거나 기분 상하게 하거나 해코지 당할 때와 같은 “압력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2코린 10,1)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수난 중의 예수님의 태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1베드 2,23) 예수님의 온유는 그분의 수난을 통해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또한 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행복 선언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 할 것이다”고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세 번째 행복 선언은 시편 37장을 인용하는데, 사실, 땅의 소유는 전형적으로 다툼이나 분쟁의 영역에 속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전쟁을 통해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차지하다(재산을 상속받다)”라는 말은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바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자(상속자)”라고 불립니다. 그 땅은 하느님 백성을 위한 약속이자 선물이며, 단순한 영토보다 더 큰 어떤 표징입니다. 곧 하늘인 “땅”입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이사 65,17; 66,22; 2베드 3,13; 묵시 21,1 참조)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가장 숭고한 땅을 “차지하는(상속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임시변통의 교훈을 찾는 겁쟁이가 아니며,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쪽 땅을 잘 지키는 것을 배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는 자비와 형제애와 신뢰와 희망을 지키면서, 자신의 평화를 지키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느님의 선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분노의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분노의 순간에 통제력을 상실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런 해결책 없이 형제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멀어집니다. 온유함은 그와 반대입니다. 온유함은 모여들게 하지만, 분노는 흩어버립니다. 온유함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우정을 구해낼 수 있으며, 다른 많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겠지만, 온유함을 통해 진정하고, 다시 생각하고, 원래의 발걸음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많은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차지해야하는 “땅”은 마태오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의 구원입니다. 타인의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땅은 없습니다. 형제와 함께 찾은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함으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복음 묵상 나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요한 14,1)

1.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당신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내 삶을 바꾼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2.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 대목입니다.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을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또한 나는 그분을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 믿으며 (말로만이 아닌) 살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요한 14,11)

3.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요한 14,12)

4. 믿음은 결국 다른 일이 아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하고, 그보다 더 큰일도 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